

GRACE 선교소식

2025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61개국 305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서산성결교회(담임 김형배 목사님)에서 큰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순복음교회(담임 박명일 목사님)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계속되는 강행군 일정으로 육신은 피곤하고 입안이 험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뜻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을 여전히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과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은혜임을 깊이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영적으로는 이단들의 거짓 사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마다 혼란과 분열의 바

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관세,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번 전국 집회 일정을 통해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제17기 TD사역’을 진행합니다. 현재 약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그리고 통일의 날에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다민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다민족 연합 기도회: 11/2
-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회: 11/17-11/22
- GTD 210기 (여자): 11/30-12/3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튀르키예

이성근 / 권순희 선교사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 덕분에 7개월 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현장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을 통해 영적무장을 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이 40년 주기라면(40년 애굽 왕궁,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저의 인생 여정은 27년 주기인 것 같습니다. 27년 한국에서 살았고, 27년 선교지에서 살았으며, 이제 사역의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

쟁, 선교는 순교라는 정신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사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년 중 절반은 몽골에서 사역자 훈련원을 세워 선교사, 교회개척 사역자를 양성하여 파송할 계획입니다. 무너진 몽골교회를 세우고 몽골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데 밀알이 되려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튀르키예에서 지금하고 있던 몽골인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교회개척 사역을 계속하면서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일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방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튀르키예가 이제 머잖아 이방선교의 종착점이 되고, 이로 인해 2스라엘까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여 두가지 사역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원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모든 부분이 카이로스 타임



에 공급되도록,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History makers가 되도록, 화목을 가져다주는 Peace makers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한국으로 오는 여정

9월 초, 이음이의 수술을 위해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정은 늘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출발 전 온라인 체크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좌석이 모두 차버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는 가족이 따로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야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이번 귀국길에서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이음이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탄자니아 입국길에는 작은 일에도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거리 비행은 여전히 쉽지 않아 한국에 도착할 무렵에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음이 수술과 회복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9월 16일 아침, 이음이가 예정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 9시 30분경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져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곧 안정된 모습을 확인하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의에 따르면, 수술 중 확인한 결과 섬유화된 부위가 예상보다 넓어 절제 범위가 커졌고, 그로 인해 수술 시간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필요한 운동 범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경과가 안정적이었고,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어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40도 가까운 열이 오르며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던 때라 먼저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음성였고, 해열제를 투약했음에도 열이 더 오르자 추가 검사를 통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수술 부위의 감염은 아닌지 마음이 불안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기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바이러스가 어른들에게도 전염된다고 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충분히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음이가 일상생활을 잘 감당해 주고 있으며, 10월 1일 진료를 통해 목보호대를 풀고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진료 이후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병원 재활은 한 주 늦춰지게 되었지만, 그 기간을 가족과 친

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로 채워가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이음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신 손길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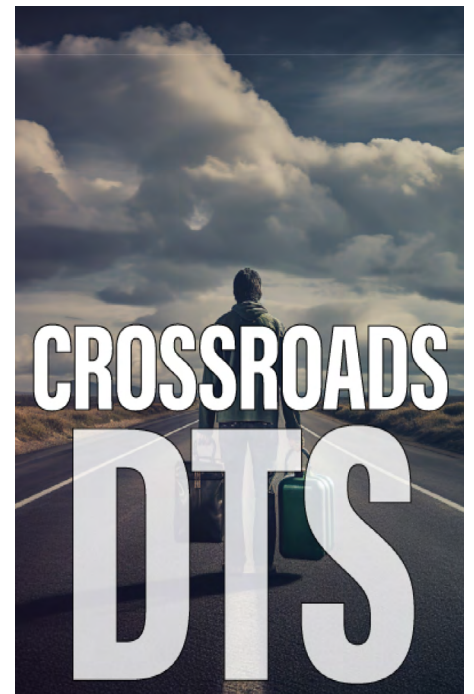
DTS 훈련 소식

저희 가족은 11월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제주 열방대학에서 열리는 YWAM CDTs(제자훈련학교)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라투 센터에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가족 전체가 함께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역의 현장에서 한마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현재 훈련 지원을 위한 면접과 건강검진 등 필요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됨으로써, 이음이가 정기 진료를 받으며 치료와 회복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일부를 이미 채워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필요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라투 센터에서 맡겨진 사역을 든든히 감당할 기초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호산나 교회

2023 성탄절 날 제가 세례를 준 “틴틴”이라는 자매를 기억하십니까?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그녀가 한국인 집사님이 운영하는 방직 공장의 매니저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비지니스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마인입니다. 대다수가 불교도인 버마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승낙했지만, 온전히 그녀를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공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김없이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목회자를 따라 심방을 가는 일에도 열



심을 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심방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있는 동네에 조그만한 땅을 샀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틴틴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은혜교회 소식

은혜교회는 평소에는 한글학원으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주일 아침 10시에 다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이후 성인들은 반을 나누어 성경 공부를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미얀마어로 되어있는 제자공부 교재가 있어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교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도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주일학교에 참석합니다. 양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저희의 제자가 된 부모 “김보이”가 저희들에게 배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남동생이 반군으로 활동하다가 드론 공격에 죽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인 오빠가 전투 중 사망했고 설상가상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도 앓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이 모든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남자 그룹홈

남자 아이들 중에 첫째가 “뽀고만”입니다. 아



이의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와 3명의 남동생들만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똑같지 않다는 점과 될 아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말하기를 뽀고만은 입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촌에서 상경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수학 기초가 없어서 학업을 따라가기가 벅찬데 반해 이 아이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 주니까 학교시험에서 올A를 받고 있습니다. 비전이 목사님인데 제가 찾고 있는 디모데가 아닌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기타 선생님을 이곳 중등음악학교에서 추천 받아 배운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름은 이고르(IGOR)라고 하는 분인데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인입니다.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이지만 이름만 정교회 신자입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따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도 합니다.

기타 연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음의 통로로 이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나서 찾는 카페가 있는데 혼자서 커피를 다 마시고 가려는 데 뒤에 앉아 계시던 연세가 지긋한 어른신이 가지 말고 자기 옆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좀 당황했지만 그 노인의 뜻대로 가지 않고 대화를 나누던 중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잘 못 알아 들어도 어른신께서 너그럽게 설명해 주시고 30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는 시간대에 그 어른신이 오셔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를 유심히 봤나봅니다. 그 다음 날

에 가서 그 어른신과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관계를 쌓고 싶었지만 그날 오후부터 아파서 가보지를 못했네요. 몸이 완쾌되면 가봐서 다시 어른신과 대화를 열 생각입니다. 일단 전화번호는 교환했지만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전화를 할 날이 오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곳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거리에서 복음에 대한 버스킹을 하려면 먼저 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늘 상가 임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임대가 되면 여러가지 계획이 생길 것이고 실현되리라 봅니다.

러시아

장석희 / 악산나 선교사

선교팀 이레세계선교회 방문

올해 초에 12 명의 목사님들이 미르 교회 뜻 평화에 성령의 불을 품고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5년만에 첫 선교 팀으로 미르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직할 하늘 길이 닫히고 티켓까지 비싸져 개인이 단기선교로 오신 경우만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 한방의료선교로 여러 번 섬겨 주신 목사님이 선교팀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전과 오후 2번씩 교회에서 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선교회 대표인 김주련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팀은 집회 때 마다 예배와 성령치유 사역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임했고 선교팀이 된 것처럼 여러 번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미르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단비가 내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 & 찬양집회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22년부터 청소년 연합 수련회(3박 4일)가 여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 수용 인원이 약 200 명이어서 매년 선착순으로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팀멤버로 섬기고, 청소년들은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련회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더욱 뜨거워 집니다. 이 수련회를 구심점으로 참석한 교회들이 분기별로 연합 찬양집회를 합니다. 집회 장소는 각 교회가 돌아가며 섬깁니다. 어떤 집회 때는 1박 2일 동안 찬양 세미나 및 훈련, 악기 배우기 신앙상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는 열정적인 청년들과 배움에 갈급한 청소년들이 어우러져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가 풍성해 집니다.



절기별 초청잔치

동방정교회의 절기에 맞춰 성탄절 (1월 부활절 (4월 or 5월), 감사절(10월에는 예배와 초청잔치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가집니다. 러시아는 테러방지법 중에 종교 선교 활동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외에서 종교활동 및 모임 금지 서면 허가 받은 종교활동만 가능), 선교사의 전도 금지, 정부가 인정한 신학교 졸업생만 목회 가능(2000년 이전 선교사는 가능). 이런 이유로 절기 때에 잔치를 열어 이웃과 주일학교 학부모를 초청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인정받은 신학교를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졸업 후 러시아 신학교를 2년 이상 공부해 오던 블라지 전도사님은 다시 다른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미르교회의 리더십 이양이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더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에 인내함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초청잔치 & 방학 특별수업

주일학교에서는 1월과 8월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와 그룹모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는 부모에게도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여름방학이 3개월이라 12주에 한번씩 흥미로운 만들기 그리기 수업으로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홍보하고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일학교로 이어지게 합니다.

교회 기초 & 식당 공사

7월에 어떤 집사님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고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교회 건물 아래 수도관이 터져 있었습니다. 큰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비가 3천만원 들었습니다. 기초 공사의 필요를 위해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레선교회도 후원해 주시고, 주님은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을 통해 많은 후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행 했더니 2배의 공사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미르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아 특히 사역비 난방비는 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교회들도 힘든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후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1층에 세를 내 놓아도 다들 힘든 시기라



들어오지 않고 미니 마트를 하던 분도 월세를 내지 못 해 나갔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리더들이 계속 기도해 왔는데 1층 한 공간을 식당 운영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공사를 하면서 남은 후원금으로 마트 자리와 뒷마당에 식당을 위한 공사로 진행중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리 공사 후원금이 바닥났습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가정

2019년에 아기였던 안나를 안고 러시아에 들어왔습니다. 6년 반이 지난 지금의 안나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마태(6학년)는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해서 rutube에 만든 영상을 올립니다. 마가(3학년)는 축구를 좋아해서 2번 주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1년 전부터 공사 중이라 3명이 다른 학교를 다닙니다(러시아는 공기관을 공사 시작하면 적어도 1년 이상). 아이들 등교 시간도 다 달라서 엄마는 아침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차로 3번을 왔다갔다 합니다.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교 공사가 끝나면 아이들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마가와 안나는 2번 주 저녁에 한글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한글학교에 갔다가 끝나면 축구 운동장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수요일예배를 인도하면 1시간 이상 서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전거나 수영, 마사지 불을 이용해서 허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산나도 저와 교대로 수요일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번역과 통역 주일학교 사역 등으로 힘겹게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악산나에게 몇 달 동안 불규칙적 하혈이 있었는데, 여름에 간단한 수술을 받고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악산나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국

정OO / 정OO 선교사

새로운 시작점이 된 사역자 선교컨퍼런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동안 해마다, 이 때쯤 해서 9회째 실시해 오던 모스크 사역자 선교컨퍼스를, 이번에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아주 새롭게 진행했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개종한 부부동반 모스크 가족들과, 우리 부부동반 사역자 가족들이 시간을 같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스크대상 사역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날로 새로와 지는 자체 신학교

자체 신학교가 갈수록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고, 강의를 맡은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회사와 영적전쟁 그리고 중보기도가 추가 되었고 제자 리더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사역자들도 증원되어, 이제는 좀더 다양하고 실제적인 주제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모스크아동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메튜비전센터 완공

모스크학교의 아동들의 30-40%가 모스크아동들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였는데, 학교 2층에 금년 3월부터 시작한 메튜 비전센터가 완공되어, 이제 모스크아동들도 자유롭게 같이 예배를 드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일하는 사역자들의 소식

각 주에서 열심히 복음전파 사역과 교회개척사역 학교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 기쁜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홍수가 피해가 크게 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로 정착되어가는 각종 예배와 정기 기도회와 새벽 스피커방송

교회 학교마다 오후3시 정시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학교예배, 장년예배, 오후 헌신예배가 이제 잘 정착되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센터에서는 매일 새벽 붉은 십자가 옆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로, 약15-20분간 기도과 말씀 찬양을 반경3-7킬로까지 들리는 소리로, 복음과 신앙을 전하고 있어서, 기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하고 소리 없이 주변의 많은 모스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박준용 / 한윤경 선교사

생활소식

모리타니아는 4대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이며 100% 무슬림 국가로, 아직 일부 지역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며, 수도 누악쇼트도 최근 건설 붐과 외국 인력 유입으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음식 구입을 위해 7명이 타는 일반 소형차 택시를 두세 번 갈아타고 장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신선하지는 않지만, 야채와 과일, 질긴 고기를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은 예전보다 개선되었지만, 가끔 전기가 끊기고 3주간 물이 공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물탱크가 새는 바람에 3년치 물값을 지불하고 공사를 해서 다시 2주간 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경험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물과 전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더운 날씨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 옷이 소금으로 하얗게 변하지만, 11월이 되면 조금 시원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교육과 선교 준비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10월 6일부터 프랑스어 학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윤경 선교사는 현재 신학대학원과 대학을 휴학 중

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중입니다.

집주인이 가라지를 빌려주어 책상과 키친 캐비닛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놀러 오고 있습니다. 집 앞 계단은 동네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핫사니아어를 빨리 습득하여, 아이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행정과 교제

한윤경 선교사는 1년 거주 허가를 받았으나, 다섯번이나 방문을 했지만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3년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 학원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 서류 준비와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몇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2025년 GMI신학교 첫 수업(Modulo#1)이 시작된 지가 엿그제 같은데 다음주에 벌써 아홉번째 강의(Modulo#9)가 진행됩니다. 11월에 GMI신학교 올해 마지막 강의와 12월에 중미 청소년 컨퍼런스를 끝으로 올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난 선교편지에 알려드렸듯이 올해 2025년부터 저희 GMI 선교의 사업영역이 과테말라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미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엘살바도르 교회들이 저희 GMI의 선교 프로그램인 TD와 인카운터를 통해 GMI의 선교 영성을 경험하고 난후, 큰 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지난 4월에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San Salvador)에 GMI El Salvador 선교센터가 개척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중미 선교사업의 전초



적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교회와 연합하여 청년들의 찬양과 예배, 그리고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청년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나아가서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할 주의 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미 선교사업의 핵심은 청년사업입니다. 지금 중미국가에서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회심하며 영적인 각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D와 인카운터를 경험한 많은 청년들이 이미 지난 1월에 저희 GMI 신학교에 2025년 신입생으로 입학했고, 2026년에도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초에 중미 AFA 첫 1기가 열렸습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4개국의 여러 교회들의 청년 리더들 61명이 캔디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큰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한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고 변화받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생 캠퍼스 사업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미 교회 연합과 청년 대각성 사업이 순조롭게 잘 계획되고 실행되어서 하나

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니카라과에 GMI 사업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니카라과는 복음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미 7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첫 방문한 나라이고, 2년 전에 말씀 컨퍼런스를 열어서 현지교회들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직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니카라과에 전도의 문을 여는 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며칠 전 에스더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14:14)라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년 전에 니카라과에 첫 발을 띄게 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인 바로 지금 니카라과에 전도의 문을 열라는 말씀으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앞으로 니카라과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저희는 현재 기아대책 훈련 과정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새기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P국을 향해 품으신 마음과 그 땅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시는

지를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이 교육의 불모지였던 시절,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민족의 소망을 일으켰던 초기 선교사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이 그랬듯이, 저희 또한 P국의 가난한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난을 넘어, 세계관의 가난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업이 저희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10월 1일 진료 후 시작될 이음이의 재활이 두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척추가 더 이상 휘지 않고 틀어진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근육과 움직임이 회복되도록
2. 제주 열방대학 CDTS 훈련 준비 가운데 면접과 건강검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훈련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3.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나눔이 은혜롭게 이어지도록
4. 가라투 선교센터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M국 한OO / 김OO 선교사

1. 영육간에 강건함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한글학원에 수강생들을 보내 주소서
5. 열매맺는 사역 되게 하소서
6.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모리타니아 박준용 / 한윤경 선교사

1. 박준용, 한윤경 선교사의 거주증이 원활히 준비되고 순조롭게 발급되도록
2. 프랑스어와 핫사니아어를 빨리 습득하여 지역 아이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3. 내년에 신학교를 재 등록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보스니아 언어에 더 익숙해지고 능통해질 수 있도록
2.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3.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현지 목사님들과의 네트워킹이 생길 수 있도록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1.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2. GMI중미 선교센터(엘살바도르)가 중미사역 영적부흥의 핵심진원지가 되도록
3. 2026년 GMI 중미 신학교 학생 모집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4. 니카라과/온두라스 중미사역 확장에 부흥이 있도록



P국 정OO / 정OO 선교사

1. 이 곳 전역에 많은 그리스도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소서
2. 이 나라 교회와 사역자 성도 크리스찬 가족들이 개종한 그리스도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중보하고 돌보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소서
3. 예수그리스도를 믿지만 고립되고 억압된 주변 환경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 그리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육적 영적 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1. 산타페교회(까미노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오텔로 사무디 목사의 영성과 까렌 사모의 여성 성경공부 인도와 유고 심방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아들 마티스 사무디군이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도록
2. 멕시코의 개신교 교회들과 까미노 신학교를 비롯한 신학교 연맹 신학교들과, 목회자들과 제직들이 협력하여 자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력으로 복음전파에 힘쓰도록
3. 내년 상반기에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월드컵전도대회의 기회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교회연합” 이 전도자 훈련, 전도지 준비와 보급용 성경 구입 등이 잘 되도록
4. 멕시코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까미노신학교 도서관에 비치 된 도서들을 잘 활용하여 지성과 영성을 잘 갖추도록
5. 저희 내외의 건강과 이번 가을학기 멕시코 신학교연맹 신학교들에서 강의하게 되는, 신구약 성경과목들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지역

- 은혜동산(통일민 TD) 17기 (10/24-11/2)
 - 태국 TD2기 (10/31-11/8)
-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알래스카 인카운터2기 (11/11-11/17)
S/L: 송중호 목사
디렉터: 신기혁 집사
문의: 어에늑 집사 (714-313-5544)
- 필리핀 태국 그레이스 캠프 (12/14-12/26)
S/L: 안영식 목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멕시코 노갈레스 인카운터 (1/11-1/16)
S/L: 이창기 목사
디렉터: 김대규 장로
문의: 이상홍 장로 (310-400-4634)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2026)
문의: 이희겸 집사 (714-337-3091)

-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2026 GMI 아시아 권역 선교대회

2026. 02.23(월)~02.26(목) 장소 : 베트남 하롱베이

*팀 멤버 모집 문의 : 이희겸 집사(714.337.3091)